



'귀 열리니, 마음 열리네' 조계종 광주전남전법단은 3월 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다문화가정 후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수익금 전액은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해프는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인 어머니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불법 공부하는 사부대중 '공덕'

실상사 화엄학림, 화엄불교대학 등 졸업 줄이어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5명, 연구과정 4명 등

전북지역 불교대학에 졸업식이 잇따라 개최됐다. 금산사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2월 26일 전북 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에서 불기 2554학년도 제22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화엄불교대학 졸업식에는 학장 원행 스님, 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제한 스님,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 주경기 전북포교사단부단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2010년도 입학생 77명이 졸업장을 수여하고 우수한 성적과 활동을 한 학생에 대한 공로상 시상도 이어졌다. 공로상은 포교원장상에 박만덕, 한덕남 이사장상에 김영하·김경자·김성례·안윤주, 학장상에 김용근·홍수기·서삼균·김정숙·박기석 씨가 각각 수상했다. 원행 스님은 "칭찬한 부처님 가르침을 얻어 불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가르침에 따라 몸과 말과 뜻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엄불교대학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지정한 최우수 신도 교육기관으로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경전공부, 심참 수행, 각종 봉사 활동 등을 1년간 교육한다. 이에 앞서 17일 승가교육기관인 남원 실상사 '화엄승가대학원'(화엄학림의 새 이름)에서도 전문과정 5명, 연구과정 4명의 스님들이 졸업했다. 실상사 화림원은 연구과정(화림원)을 신설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화엄승가대학원 학장 해강 스님은 "16년 동안 13기까지 졸업식을 하게 된 것은 교수사·학인 스님 뿐만 아니라 학림을 보살펴 준 실상사 사부대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화엄승가대학원은 교육개편 등의 이유로 2011년에는 신입학원을 모집하지 않는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도 27일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졸업식 개최하고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김진수 전북 포교사단장, 박종근 익산불교신도연회장장 등 신형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전북도 내에 재가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불교대학은 1년 과정으로 화엄·전북·이리·남원불교대학이 있다. 무주불교대학은 불교교양대학으로 3개월 과정이며 부처님의 생애와 기초 교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빈한 삶 이어가겠다"

선각종 종정 정업 스님 49재



"큰스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큰 법(法)을 베풀어 주십시오." 강진 읍천사(총무원장 정암·사진)는 3월 1일 대웅전에서 선각종 종정 정업 스님 49재 및 사리 친견법회를 개최했다. 49재 행사에는 원응 스님, 백양사 장오 스님을 비롯해 이계호 전남 행정부지사, 유선호 국회의원,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1부 정업 스님 사리 8과 친견에 이어 2부 불교의례, 감사패 수여, 추도사, 추모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3부에서는 복성화님의 살풀이, 광주 미륵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일운 스

님의 영산작법이 진행됐다. 정업 스님은 인사말에서 "큰스님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사셨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지비의 삶을 실천하셨다. 모든 종도들이 큰스님의 청빈한 삶과 동체대비의 마음을 이어받아 실천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49재는 한국영산회 회장 서을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의 집전 하에 나비무를 비롯해 영산작법이 시연됐다. 정업 스님 열반이후 다비까지 수고해준 분에 대한 답례로, 나일환 회장(한국문화연대), 불자 가수 정현, 정상현, 임병민, 윤순자 씨에게 감사패가 각각 전달됐다. 한편 정업 스님은 1914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해 1949년 백양사 만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고, 남일 대부사, 지리산 실상사, 경남 안정사 선방에서 서경보 스님 등과 함께 수행정진했다. 스님은 강진 무위사, 영암 망월사, 강진 고성사 주지 역임, 영암 천황사·광주 동광사 창건, 강진 자비정사 조실로 주석했다. 2000년 선각종 초대종정에 추대됐다. 1월 14일 강진 자비정사에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섬마을 마을잔치 '인기 만발'

섬불교포교단 매월 다른 섬 포교, 4월 신안 비금동 서산사

'한국의 섬불교 포교단'(단장 도제)은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근),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과 공동으로 2월 27일 순천 용화사(주지 상종) 포교당 금당암이 위치한 전남 완도군 금당면 복지회관에서 마을잔치를 열었다. '금당암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열린 마을잔치에는

200여 마을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포교단은 마을 잔치 외에도 한방의료봉사, 미용봉사, 점심공양,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팀 공연도 함께 진행했다. 정영근 광주전남지역단장은 "이번 잔치를 계기로 마을주민들과 금당암의 왕래가 잦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종 스님은 "섬까지 어렵게 와 주는 것도 고마

운데 의료봉사는 물론 포교활동까지 해 줘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포교 사각지대인 전남 섬 포교는 2010년 1월부터 월 1회 진행되고 있다. 섬 불교포교단 관계는 "다음 달에는 신안 비금동 서산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루나존자> 정읍 성불사 상운 스님

작은 암자를 떠나지 않은 천진불 웃음소리



전북 정읍 내장산 성불암은 일요일이면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들썩인다. 전북지역에서 유일

하게 어린이 전용법당을 운영하는 성불암의 휴일 풍경이다. 불교세가 가장 미약하다는 호남지역에서 성불암 어린이 전용법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각 사찰 어린이 법회도 존폐위기에 놓인 사찰이 수두룩한 실정인데 성불암은 2009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 중심도량으로 선정할 정도다. 주지 상운 스님에게 남다른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과거 상운 스님에게 수행지도도 지도받던 한 신도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스님을 찾아왔다. 신도에

게는 어린 3남매가 있었다. 3남매는 너무 어려웠다. 스님은 어느 날 문득 3남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마"라고 약속을 했다. 이후 3남매는 휴일이면 집을 찾아왔고 스님은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아버지의 따스함을 전해줬다. 행복해 하는 3남매를 보며 스님은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님은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법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몹시 지루해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봤다. 성운 스님은 지도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스님은 조계종 주지 연수교육을 받으며 어

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이때 상운 스님과 인연이 닿아 시작한 어린이법회 지도자 해밀심 보살은 1만 배 정진을 하며 어린이 포교에 대한 원력을 세웠고 그 원력이 지금의 어린이법회를 만들었다. 성불암은 대한불교교사대학 교육 지원, 전문지도자 양성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지도교사 1명을 불교교사대학에서 수학도록 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포교의지를 다지고 있다. 내장산 국립공원의 협조로 어린이 생태학교를 운영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을 몸소 배우고 익히게 한다. "청소년 포교와 장학사업은 불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상운 스님은 지역 내 행편이 어려

운 어린이 청소년들을 발굴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님은 "모두 불자들의 덕"이라며 공을 돌린다. 상운 스님은 신형단체 정진회, 어린이포교, 장학회, 상호회와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 2시간씩 법당에서 108배, 명상, 참선 등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장학회는 한 불자의 보시 기금으로 전담을 마련해 그곳에서 나오는 토지 임대료, 상운 스님과 성불암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1억원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성불암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봉사하고 정진하는 날이 오면 더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말하는 스님의 얼굴에 흐르는 잔잔한 미소 속에 어린이 불교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 선암사 재산이전 본격화

재무 법무 문화재 등 5개 부문서

조계종·태고종 분규 58년을 종영하고, 41년 순천시 재산관리를 종식하게 됐다. 순천 선암사 재산권이전 인계인수가 3월 4일 순천시청과 선암사, 성보박물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측에서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성일 스님, 정병택 변호사, 김재서 세무사가 참석했다. 태고종 측에서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상하 스님, 선암사 총무 성암 스님, 이동준 변호사, 김성숙 세무사, 선암사 총무소 김도연 재무가 참석했다. 그밖에 조광준 선사모



회장, 순천시 서봉남 부시장, 정병준 국장, 순성만 문화체육관광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태고종 인수위원회는 순천 시로부터 선암사의 재산권인계인수를 위해 이날부터 재무, 법무, 문화재, 재산권(동산, 부동산), 행정(순천시) 등 5개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창대 인등



용화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경사

연등승하장 장치인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장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장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책임을 지도로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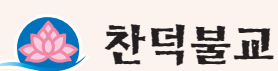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